

3월 24일 오전10시 **후쿠시마 제1원전 상태 도표** 3면

“월성·고리는 제2의 후쿠시마”



- 3월 23일 부산, 울산, 경주, 통영 거제, 서울 중앙 환경연합은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앞 바다에서 월성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반대 구호를 외치며 해상 시위를 벌였다.
- 울산환경연합 오영애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원전이 4기나 폭발하는 초유의 원전사고가 일어났는데 한국정부와 핵산업계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리1호기(사진)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시기에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것이 밝혀지면서 유사한 사고의 가능성이 지적되지만 수명연장 등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긴급성명서

- 원전사고 주민대피 주관기관인 영광군은 관련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방재 관련 담당자를 4명에서 1명으로 축소
- 영광 원전 3~6호기에 원자로 손상과 정지사고, 핵연료봉 파손과 같은 문제 안고 있으며
 - (1) 안전문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 참여를 교과부가 보장하고
 - (2) 정부와 영광군은 현실성 있는 방시능 방재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하며
 - (3) 한수원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강력히 규탄
- 참여단체: 천주교영광성당, 영광원불교, 불갑사,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광여성의전화, 영광원전수협대책위원회, 여민동락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전국교직원노조영광지회

한국 핵발전소 현황

신규 원전 후보지: 영덕, 해남, 고흥, 삼척

● 삼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대회

- 세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주목하던 지난 14, 15일 한수원은 네 곳의 신규 원전 후보지(삼척, 영덕, 울진, 고흥) 현장점검을 예정대로 진행
- 17일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자 삼척 원전유치 찬성 발언 논란
- 신규 원전 지역에서의 첫 집회인 이번 시민대회는 4월 4일 오후6시30분 / 삼척대학로 공원에서 개최
- 삼척 핵발전소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후원: 원주교구정의 평화위원회)
- 1부: 미사(원주/춘천교구 합동 예정) 2부: 추모공연, 시민대회, 촛불집회
- 오늘자 한겨레신문 “원전 유치 96.9% 찬성”...삼척 주민들 “도대체 누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9511.html>

*교과위 국회의원들 고리 월성 원전 현장시찰

- 어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변재일 위원장, 한나라당 임해규, 박보환, 민주당 안민석, 김상희, 민노당 권영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고리 월성 핵발전소 현장 시찰. 교과부 김영식 연구개발정책실장, 윤철호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동행

-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 위원장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점검하게 될 위원회를 구성할 때 **환경운동연합 등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포함해 점검**을 하고 원전사고 발생시 비상대응 매뉴얼에 있는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들의 행동요령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
- 다른 참석 의원들도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중인 고리1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전에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대응책 마련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도. 경주 방폐장 현장도 시찰

***미국과 유럽 등, 일본산 식품 수입중단 잇따라... 한국은?**

- 어제 김황식 총리 주재로 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열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
- 오늘 농식품부와 식약청이 일본산 식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
- 홍콩, 후쿠시마현 포함 5개 원전 인근 현 생산된 식품 수입 중단
-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22일 후쿠시마 원전 근처 생산된 우유 및 유제품, 채소, 과일 등 수입 중단
- 프랑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일본산 수입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
- 아이슬란드, 스위스, 프랑스에 극소량이지만 방사성물질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미국 서부해안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앞서 검출



***일본 먹을거리 방사능 오염 현재까지의 상황**

- 도쿄도 정수장에서 유아 기준치 2배 이상 방사성 물질 검출(210Bq/kg, 22일 채취)
- 일본 정부, 원전 주변 11개 품목 출하 중단 및 섭취 제한 권고
- 우유 외에도, 경립채(莖立菜·구키타치나), 시금치, 가키나, 신부동채(信夫冬菜), 산동채(山冬菜), 브로콜리, 양배추, 송송채, 순무, 치지레나, 유채, 홍채태(紅菜苔), 파슬리 등 잎 채소
- 원전 앞 바다에서 기준치 127배 이상의 방사성 요오드 검출, 수산물 오염 검사결과도 발표될 예정

***그린피스 미국 '핵에너지 예산삭감' 운동 가속화**

- 내년 책정된 360억 달러(약 40조)의 핵 에너지 보조금 예산 삭감 운동.
- 목표 4만5천 명에서 현재까지 39861명(89%) 온라인 서명에 참여

<http://www.greenpeace.org/usa/>



***중국 지방정부도 신규 원전 중단**

- 중국 중앙정부에 이어 푸젠성과 후베이성 지방정부 신규 원전건설을 잠정 중단
- 지방정부들이 잇달아 건설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연기하면서 중국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경향신문: 외신인용)

***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현재 13명)**

- 위원장: 김혜정
- 정책팀: 양이원영, 안재훈, 이지언
- 모니터팀: 염형철, 강덕희, 이명현, 김현지
- 홍보팀: 김태형, 한숙영, 최준호, 신재은
- 캠페인팀: 박창재, 김보영

***정보 및 의견** 02-735-7000 이지언 leeje@kfem.or.kr

링크

- 피폭 피해자 지원·조사 모금함 <http://happylog.naver.com/happykfem/rdona/H000000053051>
- 실시간 모니터링 · 번역 <http://cafe.daum.net/2011kfemjapan>

후쿠시마 제1원전 상태

- “1호기가 가장 위험”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 용융하고 있을 가능성 제기
- 2호기 방사선 수치 급증…3호기 검은 연기로 복구 잠정 중단

23일 21시 기준, 출처와 붉은색-노란색-초록색의 심각성 표시는 일본 원자력산업협회의 평가

원자로	1	2	3	4	5	6
노심 및 연료	손상(400)	손상(548)	손상(548)	핵연료 없음	미손상(548)	미손상(764)
원자로 압력용기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손상	미손상	미손상
격납용기	미손상	손상 의심	미손상 추정	미손상	미손상	미손상
노심 냉각장치 (AC 민물 주입)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불필요	가동	가동
노심 냉각장치 (AC 열교환기)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불필요	가동 (상온정지)	가동 (상온정지)
외벽건물	심각한 손상 (수소폭발)	경미한 손상	심각한 손상 (수소폭발)	심각한 손상 (수소폭발)	수소폭발 막기 위해 환기 구멍을 냄	
압력용기 수위	연료봉 부분/완전 노출	연료봉 부분/완전 노출	연료봉 부분/완전 노출	안전	안전	안전
압력용기 압력	안정	미보고	미보고	안전	안전	안전
격납용기 압력	안정	안정	20일 이후 감소	안전	안전	안전
노심 냉각수 주입	진행 중(바닷물)	진행 중(바닷물)	진행 중(바닷물)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냉각수 주입	확정 중	결정 대기(바닷물)	확정 중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격납용기 분출	임시 중단	임시 중단	임시 중단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사용후핵연료 수조 내 연료	미보고(292)	미보고(587)	손상 가능성(514)	손상 가능성(1331)	미손상(946)	미손상(876)
사용후핵연료 냉각	냉각수 주입 고려	20일 냉각수 주입	수위 낮음. 바닷물 살수, 일부 피해 확인	수위 낮음. 바닷물 살수 진행. 수조 수소 폭발	수조 냉각기능 복구	수조 냉각기능 복구
중앙제어실	정전으로 인해 열악		정전으로 인해 열악(조명 복구 예정)		미손상(추정)	
사고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	-
환경피해	23일 오후 3시 원전 정문에서 264.4 μSv/h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JAIF) <http://www.jaif.or.jp/english/>